

味에 關한 文獻的 考察(II)

金秉洙·姜政秀*

I. 緒 論

味에 대하여 最初로 言及한 文獻은 <書經·洪範>으로서 여기에서는 味の 生成原理에 關하여 敍述하였고, 그 후 <黃帝內經>에서는 五味와 人體와의 關係를 陰陽五行, 五藏, 五體와의 相關關係로써 人體의 生理變化를 說明하고 있다.

<素問·寶命全形論>¹⁾에서는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이라 하여 天地에 의하여 人間이 生한다고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²⁾에서는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라고 하여 天地가 人을 生하는 매개체로 氣와 味를 사용한다 하였다. 이 중 人을 生하는 매개체로서의 味에 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³⁾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味가 人을 生하는 過程을 敍述하였다; 天이 地를 生하고 地가 人을 生하는 過程은 東西南北中央의 方位에서 始作되어, 地의 五行과 五味로써 人의 五藏과 五體가 生成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味가 天地自然 內에서 살고 있는 人間의 生理變化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重要的 因子임에도 불구하고 味 自體의 原理에 대하여 體系的인 研究가 未洽한 실정이다.

이에 筆者는 이미 <味에 관한 文獻的 考察(I)>을 발표하여 味の 概念, 發生, 作用 및 現代科學的인 分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번에는 五味인 酸, 苦, 甘, 辛, 鹹 各各의 作用, 五味의 陰陽五行配屬의 原理, <內經>의 ‘味歸形’과 “五味가 五藏을 生한다”는 敍述의 보다 具體的인 例로써의 味の 臟腑發生學 等を 把握하고자 味에 관한 歷代文獻을 整理하는 過程中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味の 發生學的 意義

지난 발표에서 언급된 味の 作用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素問·生氣通天論>에 언급된 “陰之所生 本在五味⁵⁾”와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언급한 “味歸形⁶⁾”은 五味가 五藏을 生成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五味에 의하여 五藏이 생성되는 臟腑發生學에 대한 考察을 제시하였다.

王⁷⁾은 그의 著書인 <陰證略例>에서 “論曰 人之生也 由五穀之精氣所化 五味之備 故能生形 經曰 味歸形 若傷于味 亦能損形”이라하여 사람의 生은 五味가 갖추어져야 능히 形體를 이루며, 이것이 內經의 ‘味歸形’의 의미임을 서술하였으며 나아가 味에 傷하면 다시 形體를 손상시킬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管子는 그의 저서인 <管子·水地篇>에서 人間이 발생할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五味로써 五藏을 생성한다는 觀點을 취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人 水也. 男女精氣合 而水流形. 三月如咀 咀者何? 曰五味. 五味者何 曰五藏. 酸主脾 鹹主肺 辛主腎 苦主肝 甘主心. 五藏已具 而後生肉. 脾主隔⁸⁾ 肺生骨 腎生腦 肝生革 心生肉 五肉

2) 洪元植 : 前揭書 p36.

3) 洪元植 : 前揭書 p23~24.

4) 金秉洙·姜政秀 : 味에 관한 文獻的 考察 (I), 대전,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 1996, pp233~236

5)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17.

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23.

7) 王好古 : 陰證略例(歷代中醫珍本集成 第20券),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3

8) 李勉 : 管子今註譯, 臺北, 臺灣尙武印書館, 民國79年, p682

“宋本隔作膈 古通”으로 隔은 膈也로 橫膈膜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7.

已具 而後發爲九竅 脾發爲鼻 肝發爲目 腎發爲耳 肺發爲竅 五月而成? 十月而生 生而目視耳聽心慮 目之所以視 非特山陵之見也 察於荒忽. 耳之所聽 非特雷鼓之聞也 察於淑湫. 心之所慮 非特知於麤糲也 察於微眇. 故修要之精. 是以水集於玉 而九德出焉 凝蹇而爲人 而九竅五慮出焉. 此乃其精也⁹⁾.” 以上の敘述을 살펴보면 妊娠 3個月때의 胎兒는 外部物質을 吸收하는데 그것이 바로 五味이다. 그리고 이 五味는 五臟을 生成하며, 다시 五臟이 갖추어진후에 膈, 骨, 腦, 革, 肉인 五肉을 生하며, 다시 五肉이 生成된 후에 九竅가 發하니 各各의 五臟이 九竅를 發하여 五月에 形態를 이루고 十月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에서 언급된 ‘五行生 五臟, 五臟生 五體¹⁰⁾’의 구도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五味가 五臟을 生하는 것이 <黃帝內經>의 五行理論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五肉도 <黃帝內經>의 五體¹¹⁾와 흡사한 것 같으나 틀린 부분이 많다. 이는 <管子>가 黃帝內經의 理論이 定立되는 春秋戰國時代에 만들어진 탓으로 아직은 韓醫學의 理論體系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시대의 書籍임을 의미한다.

後代의 人體發生學的인 概念은 巢元方의 <巢氏諸病源候論>의 ‘妊娠時月分經養胎說’로서 최초의 經絡養胎說을 주장¹²⁾하였으나 ‘味歸形’의 味에 의한 장부발생학의 문헌은 劉昉의 <幼幼新書>에서 보여진다. 다음은 <幼幼新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第一月妊娠, 胎月本於肝臟, 主養魂魄, 故此月宜多吃酸物, 以助目也, 自然一臟強盛也. 物味辛辣, 緣肺納辛, 主於金剋木, 恐傷於肝.

第二個月亦然, 何也? 緣少陽脈養膽也, 肝合故也.

第三個月, 肺臟主養心之脈, 主神, 此月宜加辛酸之物, 食焦苦也. 緣肺主於金, 其臟納辛, 以助於金氣也. 食之苦物, 緣心納苦, 主火, 火剋金故也.

第四個月, 心臟主於養腎, 此月宜加增於焦, 以助火也. 緣心主於火, 其臟納焦苦, 勿食酸¹³⁾, 緣腎臟納鹹, 主於水故也.

第五個月, 腎臟主養於脾, 此月宜增於鹹, 少吃甘恬之物. 緣脾主於土, 土緣剋於水故也.

第六個月, 脾臟主養氣, 此月加於恬物以助土. 土緣主於脾也.

第七個月, 筋骨養形而能動轉, 少食鹹物. 惟五味相滋, 恬淡得所, 爲此月胎已通, 九竅上下相應也.

第八個月 形神俱足成, 味俱宜減省, 勿食熱毒及鷄, 兔, 狗, 猪, 牛, 馬, 鳥, 雀等物肉, 竝是傷胎之物, 亦作赤瘤, 切宜戒之. 但只聽經, 近善, 居處靜室, 所生兒女壽永水多貴. 切忌嗔怒, 類須動作, 然用力行住, 坐臥不得久也. 須要慎之.

第九個月, 慎忌吃諸炙博, 腥臭, 鱗蟲之物, 及壅毒肥滑粘膩之物, 直至月初忌之, 恐傷孩兒頭腦, 乃生下多生惡瘡壅毒.

第十個月嬰兒已生血脈, 上下循環; 化爲乳汁, 通信之道, 但依月次調護, 自然男女無剋罰, 筋骨圓滿, 聰惠壽長, 爲人易養, 無夭亡矣¹⁴⁾.”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第一月妊娠에 태어는 肝臟에 本을 삼으니 魂魄을 養하므로 酸物을 많이 먹어서 目を 도우니 自然 一臟이 強盛하게 된다. 辛辣한 食物은 肺에 納하는 까닭에 金剋木을 하여 肝을 傷하게 할까 두렵다.

第二個月도 역시 그러한 것은 少陽脈이 膽을 養하는데 膽은 肝과 合하는 까닭이다.

第三個月은 肺臟이 心之脈을 養함을 主하며, 神을 主하니 이 달에는 辛酸之物과 焦苦한 맛을 마땅히 더 먹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肺가 金을 主하므로 其臟이 辛味를 納하여 金氣를 돕는다. 쓴맛을 먹는 연유는 心이 苦味를 納하여 火를 主하니 火剋金인 까닭이다.

9) 李勉 : 管子今註譯(下冊), 臺北, 臺灣常務印書館, 民國79年, pp676~677

10) <素問·陰陽應象大論> :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 脾生肉 /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11) 筋, 脈, 肉, 皮, 骨

12) 宋炳基 : 韓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 1992, p57

13) 문맥상 ‘物食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著者註)

14) 劉昉 :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50~51

第四個月, 心臟이 腎을 養하기를 主하니 이 달은 焦味를 더 많이 먹어서 火를 도와야 한다. 그 이유는 心이 火를 主하여 其臟이 焦苦한 맛을 納하고 煎맛을 먹는 이유는 腎臟이 鹹味를 納하여 水를 主하는 까닭이다.

第五個月에 腎臟은 脾를 養하기를 主하니 이 달은 鹹味를 더욱 많이 먹을 것이며, 甘恬之物을 조금 먹는다. 그 이유는 脾는 土를 主하며 土는 水를 剋하기 때문이다.

第六個月에는 脾臟이 氣를 養하기를 主하니 이 달은 恬物을 加하여 土를 도와주는데, 이는 土가 脾를 主하기 때문이다.

第七個月에는 筋骨이 形을 養하여 能히 動轉할 수 있으니 鹹物을 적게 먹고 오직 五味가 相滋하고 恬淡한 맛을 얻은 바이니 이 달에 胎가 이미 通하여 九竅가 上下로 相應함이다.

第八個月에는 形神이 모두 갖추어져 완성되니 味도 모두 갖추어지므로 마땅히 적게 먹으며 熱毒이나 鷄, 兔, 狗, 猪, 牛, 馬, 鳥, 雀等物의 肉은 섭취하지 않으며, 아울러 胎을 傷할 物은 역시 赤瘤를 만드니 절대로 敬戒해야한다. 다만 麤經, 近善, 居處靜室하게 하면 태아가 수명이 길고 귀할 것이다. 절대로 嗔怒와 類須動作은 꺼릴것이다.

第九個月에는 炙燔, 腥臭, 鱗蟲之物 및 壅毒肥滑粘附之物을 먹는 것을 삼가고 꺼린다.

第十個月에는 嬰兒가 이미 血脈을 生하여 上下로 循環한다.

이로서 小兒의 十月養胎에 五味로써 이루어짐을 확인하니 이는 곧 內經에서 언급한 '味歸形'과 '陰之所生 本在五味'의 실질적인 臟腑發生을 論함이다. 이것을 圖表化시키면 <표 1-1>과 같다.

以上을 살펴보면 胎兒의 發生順序가 相侮順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肝 → 膽 → 肺 → 心 → 腎 → 脾 → 筋骨 → 形神 → 血脈이 生" 이는 木侮金 金侮火 火侮水 水侮土로서 相剋의 逆順으로 臟腑가 發生하고 五藏이 具備된 然後에 筋骨이 形成되어서 形體를 이루는 順序를 밟는다¹⁵⁾.

15) 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 의한 十月經絡養胎說은 一二月은 木이 主하고 三四月은 火가 主하는데 心火가 아니 心包, 三焦火가 主하고 五六月은 土가 主하며, 七八月은 金이 主하고, 九十月은 水가 主하는 것으로 되

<표 1-1> 《幼幼新書》에 나온 十月養胎論

	臟腑	五味		臟腑	五味
一月	胎月本於肝臟	宜多吃酸物	六月	脾臟主養氣	此月加於恬物以助土
二月	緣少陽脈養膽也	上同	七月	筋骨養形而能動轉	少食鹹物, 惟五味相滋恬淡得所
三月	肺臟主養心之脈	宜加辛酸之物, 食焦苦也.	八月	形神俱足成	味俱宜減省.
四月	心臟主於養腎	宜加增於焦,	九月		慎忌吃諸炙燔腥臭鱗蟲之物...
五月	腎臟主養於脾	此月宜增於鹹 少吃甘恬之物	十月	嬰兒已生血脈上下循環	

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 의한 十月經絡養胎說은 一二月은 木이 主하고 三四月은 火가 主하는데 心火가 아닌 心包, 三焦火가 主하고 五六月은 土가 主하며, 七八月은 金이 主하고, 九十月은 水가 主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劉昉의 幼幼新書와는 說明이 틀리다.

巢元方の 說을 表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1-2> 《諸病源候論》에 나타난 十月經絡養胎說.

	五行	經絡		五行	經絡
一月	木	足少陽膽經	六月	土	足太陰脾經
二月		足厥陰肝經	七月		手陽明大腸經
三月	火	手少陽三焦經	八月	金	手太陰肺經
四月		手厥陰心包經	九月		足太陽膀胱經
五月	土	足陽明胃經	十月	水	足少陰腎經

* 心은 君火이므로 全體를 代行하므로 10月 全體에 影響을 미쳐서 心小腸은 月別經絡에서 빠진다.

비록 既存의 十月養胎說과는 일치하지는 않으나 味歸形의 理論에 입각하고, 天生地 地生人의 天地人 相生原理에 의하여 地의 味가 人體의 五藏을 生한다는 구체적인 예를 든 것만으로도 劉昉의 《幼幼新書》는 높은 가치가 있다.

2. 各各의 五味

五味(오미)는 辛, 甘, 酸, 苦, 鹹의 五種의 藥味

어있어서 劉昉의 《幼幼新書》와는 說明이 틀리다.

를 말한다. 以外的 味로는 여러 가지 見解가 있는데, 洪¹⁶⁾은 “五味 이외에 淡味가 있는데, 이는 藥味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五味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六味이다.”라고 했으며, 吳¹⁷⁾는 “藥物의 味는 辛, 甘, 酸, 苦, 鹹 五味이외에 ‘淡’味, ‘澁’味の 두 종류가 더 있다. 王好古가 말하길 “淡附于甘”이라 하고 徐洄溪가 말하길 “澁則酸之變味 澁味收澁亦與酸同”이라 하는 故로 습관상 五味라고 칭한다.”하여 다양한 맛¹⁸⁾을 크게 七味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五味에 귀납¹⁹⁾시켰다.

최초의 五味의 각각에 대한 性品을 말한 곳²⁰⁾은 <黃帝內經·藏氣法時論>으로 “辛散, 甘緩, 苦堅, 酸收, 鹹軟²¹⁾”으로 되어있고 <至眞要大論>에 “淡味滲泄²²⁾”이라 했으며, 이를 歷代 註家들은 五味之用²³⁾이라 했다. 이후에 後世諸家의 說에 의하여 五味의 主要作用이 더욱 확장²⁴⁾되었는데 특히 王²⁵⁾은 <藥性總義>에서 五味之用으로 “凡藥 酸者: 能澇 能收, 苦者: 能瀉 能燥 能堅, 甘者: 能補 能和 能緩, 辛者: 能散 能潤 能橫行, 鹹者: 能下 能軟堅, 淡者: 能利竅 能滲泄”이라 하여 <藏氣法時論>에 나온 의미를 바탕으로 五味의 각각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酸 苦 甘 辛 鹹의 각각의 성질을 서술한다. <黃帝內經>에 나온 味인 酸 苦 甘 辛 鹹과 淡味를 서술하고 澁味는 酸味에 포함시켜서 설명한다.

1) 酸

<說文解字>²⁶⁾에 “酸 酢也(月令 春三月其味酸 鴻範 曲直作酸) ㄱ 酉 𠂔 聲(索官切 十四部) 關東謂酢曰酸.”이라고 했으니 이를 해석하면, 酸味는 식초, 신맛으로서 봄의 맛이며 曲直이 만드는 맛으로 關東에서는 식초를 酸이라 했다.

<黃帝內經·藏氣法時論>²⁷⁾에는 “酸收”라고 하여 최초로 酸味의 성질을 언급하였고 以後에 諸家들이 이 글에 근거하여 酸味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吳²⁸⁾는 酸에 대하여 “能收 能澁한다. 卽 모두 收斂 固澁작용이 있다. 虛寒 虛喘 久瀉 久痢 遺精 遺尿 帶下等證에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烏梅

五味子是 능히 收斂止汗 斂肺平喘 澁腸止瀉하고 金櫻子是 능히 澁精止遺등의 작용이 있다.”라고 했다.

洪²⁹⁾은 “酸味는 收, 澁의 作用이 있다. 例로서 山茱萸는 虛汗을 收斂하고, 金櫻子는 遺精을 멎게 하며, 五倍子는 澁腸하여 久瀉를 멎게 한다.”라고 했다.

尹³⁰⁾은 소박한 경험에 의하여 “酸味를 먹으면 口味가 맵고 口中에 津液이 나오며 清涼한 감을 일으키고 熱感이 減退되며 갈증이 가라앉고 수렴성이 있음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낀다.”라고 하고 또 “澁味는 수렴성이 강하여 변비가 생기고 입

17)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18) 다양한 여러 가지 맛이 있으며 이를 西洋에서는 四基本味로 東洋에서는 五基本味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신씨본초학에 비교적 자세히 나오고 있다.

19) 凌一揆外 2人 :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9.

실제로는 다양한 맛이 있지만 五味가 가장 基本的인 五種의 滋味가 되다.

20) 苦學敏 : 中藥學, 北京, 中國醫藥科學技術出版社, 1990, p18.

2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9.

2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4.

23) 張介賓 :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0, p.312.

吳崑 : 內經素問吳注,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p111.

24)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25)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p2.

26) 段玉裁 :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2年, p751.

2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9.

28)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29) 洪元植·金定濟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390.

30) 尹吉永 : 東醫學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125~126.

16) 洪元植·金定濟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390.

안이 뚝해서 뻑뻑해지는 것을 흔히 경험한다.”하여 “酸味, 澁味는 止瀉, 止瀉, 收斂 등의 效果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東洋學概論》³¹⁾에서는 “신맛이 있는 약은 대체로 아물게 하고 술술 나가는 것을 멎게 하는 작용이 있다. 예를 들면 가자, 五倍子, 赤石脂, 金櫻子, 五味子와 같은 약들은 모두 허하여서 나는 땀을 멎게 하며 유정을 멎게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諸家들은 酸味の 作用을 內經의 ‘酸味는 收斂한다’는 基本機能에서 발전시켜 “酸味는 體內에 들어가 收斂시키는 작용이 있어 止嗽, 治遺精, 小便不禁, 斂熱, 斂疔, 瀉腸, 固澁生津, 泄瀉, 止虛汗하는데 活用된다³²⁾.”라고 本草學 교과서는 정리하고 있으며 淸의 汪昂은 이를 “酸者³³⁾; 能澁能收”라고 요약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³⁴⁾.

(1) “酸收”³⁵⁾³⁶⁾

酸收는 여러 方面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斂氣, 斂汗 等이다. 《注解傷寒論》에서는 “酸收也, 芍藥之酸收陰氣而泄熱”이라 하고, 《內外傷辨惑論》에서는 “五味子之酸, 清瀰燥金”이라 하고, 또 “五味子之酸, 收輕散之氣, 止咳嗽”이라 했다. 《湯液本草》는 말하길 “酸以收之, 扶陽而收陰氣, 泄邪氣”라하고 《推求師意》에서는 “蓋酸能收其痰”이라 하여 酸味는 陰氣를 收斂한다고 하였다. 白芍은 胃氣를 收하고, 烏梅, 訶子是 肺氣를 收斂하는 것이 모두 ‘酸收’의 機能이다. 실제로 ‘酸收’와 ‘酸斂’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³⁷⁾.

(2) “能澁”

澁精과 澁腸의 기능을 포괄하며 澁의 作用은 酸味에서 强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湯液本草》의 山茱萸를 설명하는데 “《聖濟經》云滑則氣脫, 澁劑所以收之, 山茱萸之澁以收其滑……”이라 했고, 《本草綱目》에는 언급하길 “五倍子斂肺降火, 化痰飲, 化咳嗽, ……失血, 久痢, 收脫肛子腸墮下”이라 했으며, 《本草求真》에서는 “赤石脂……色赤能入下焦血分固脫, 及兼潰瘍收口, 長肉生肌也……”라 했다.

이는 酸味の 作用을 크게 收斂, 固澁시키는 作用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로 止汗 止瀉 等으로 氣運을 收斂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에너지의 求心性

의 作用이 强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진다.

2) 苦

《說文解字》³⁸⁾³⁹⁾은 苦를 大苦 苓也 艸 古聲이라 하여 매우 쓴맛을 초목의 맛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黃帝內經·藏氣法時論》⁴⁰⁾에는 “苦堅”이라고 하여 최초로 苦味の 성질을 언급하였고 以後에 諸

3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62.

33)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p2.

34) 이하 五味之用的 해석은 주로 《中藥藥性論》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35) 高曉山 : 中藥藥性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73.

36) 以下 五味之用的 根據는 中藥藥性論의 原文을 根據로 整理를 한 것임.

37) 高曉山 : 中藥藥性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73.

38) 段玉裁 :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2年, p27.

39) 大苦(逗) 苓也(見邴風唐風毛傳 釋艸苓(도꼬마리)作藟(감초) 孫炎注云 今甘艸也 按說文 甘字解云甘艸矣 倘甘艸又名大苦又名苓 則何以不類列而割分異處乎 且此云大苦, 苓也 中隔百數十字又出藟篆云大苦也 此苓必改爲藟而後畫一 即畫一之 又何以不類列也 攷周時音韻 凡令聲皆在十二部 今之眞臻先也 凡藟聲皆在十一部 今之庚耕清齊也 簡兮, 苓與榛人韻 采苓, 苓與顛韻 倘改作藟則爲合音而非本韻 然則釋艸作藟, 不若毛詩爲善 許君斷非於苦下襲毛詩 於藟下襲兩雅 劃分兩處 前後不相顧也 後文藟篆必淺人據兩雅妄增 而此大苦苓也 固不誤 然則大苦即卷耳與 曰非也 毛傳, 兩雅皆云卷耳, 苓耳 說文苓篆下必當云苓耳 逗卷耳也 今本必淺人刪其苓耳字 卷耳自名苓耳 非名苓 凡合二字爲名者, 不可刪其一字以同於他物 如單云蘭非芄蘭, 單云葵非鳧葵是也 此大苦斷非苓耳 而苦篆苓篆不類, 又其證也 然則大苦何物 曰沈括筆談云 兩雅藟大苦注云 蔓延生葉似荷青 莖赤 此乃黃藥也 其味極苦 謂之大苦 郭云甘草 非也 甘草枝葉全不同 苦爲五味之一 引伸爲勞苦) 艸 古聲(康杜切 五部)

40)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9.

31) 編纂委員會 : 東洋學概論,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23.

家들이 이 글에 근거하여 苦味の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吳⁴¹⁾는 苦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能燥 能泄한다. 燥는 燥濕作用을 말하니 예를 들면 苦溫한 厚朴은 능히 燥濕除滿하며 苦寒한 黃連은 능히 燥濕清熱한다. 泄에는 降泄 通泄 清泄의 구분이 있다. 예를 들면 杏仁은 능히 肺氣를 降泄함으로써 平喘하고 大黃은 능히 臟腑를 通泄함으로써 通便한다. 梔子는 능히 清泄心火하므로 除煩한다.”

洪⁴²⁾은 苦味를 “瀉, 燥의 作用이 있다. 例로서 黃連은 瀉火하고, 大黃은 瀉下 通便케 하며, 蒼朮은 燥濕한다.”라고 설명하였다.

尹⁴³⁾은 소박한 경험에 의하여 “苦味는 극소량을 먹으면 口味가 나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口味를 傷하고 嘔吐가 나며 억지로 많이 먹고 토하지 않으면 腹部에 寒冷感을 느끼며 설사가 나고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여 “苦味는 解熱, 涌泄, 沈靜 등의 效果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東洋學概論》⁴⁴⁾에서는 “쓴맛이 있는 약들은 대체로 습기를 없애고 내리는 작용이 있다. 예를 들면 황련, 고삼, 황백과 같은 약들은 다 체내에 습기가 많은 것을 없애면서 열을 내린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諸家들은 苦味の 作用을 內經의 ‘고미는 단단하게 한다는’ 基本機能에서 발전시켜 “苦味는 體內에 들어가서 沈靜, 清熱, 降泄, 堅脆, 燥濕, 消腫, 解毒, 消炎, 養血, 補陰, 寫火, 瀉下 作用을 나타낸다⁴⁵⁾.”라고 本草學 교과서는 정리하고 있으며 清의 汪昂은 이를 “苦者⁴⁶⁾; 能瀉 能燥 能堅”라고 요약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苦味の 作用을 能瀉, 能燥, 能堅의 세가지 방면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苦⁴⁷⁾(瀉)泄⁴⁸⁾

苦泄의 意味는 《內經》에서 처음으로 根源을 했으며, 《醫學入門》에서는 “苦泄, 爲瀉其上升之火也”라 하고, 《注解傷寒論》에서는 이르길, “大黃, 枳實之苦以潤燥, 除熱”, “厚朴之苦, 以泄腹滿”, “厚朴之苦, 下結燥”라 했다. 《內外傷辨惑論》에서

는 “以苦瀉之”라 하고, 《醫學發明》에서는 “瀉氣不降, 以苦泄之”라하고, 《湯液本草》에서도 “苦以泄滯”라 하고, 《金匱要略心典》에서 이르길, “苦以泄痞”라 하고, 《醫學讀書記》에서 말하길, “芩, 連之苦, 能泄其滿”라고 하여 ‘苦泄’에는 泄下, 泄火, 泄氣, 降氣 등의 內容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通泄을 大黃처럼 通下瀉火作用이 있어 熱結便秘證에 사용하는 것이고, 降泄은 杏仁처럼 降氣平喘作用이 있어 氣逆喘咳證에 사용하는 것이며, 清泄은 梔子처럼 清火除煩作用이 있어 熱盛心煩證에 사용하는 것이다

(2) “苦燥”

이는 苦味는 능히 燥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云하길 “苦能燥濕”이라고 하고 《蘭室秘藏》에서도 “白朮之苦甘, 以苦補燥氣之不足....”라고 하여 濕을 말리는데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두종류로 나누면 濕證에는 寒濕과 濕熱의 두종류가 있으며, 苦味藥은 苦寒燥濕과 苦溫燥濕의 두종류로 나뉘어 진다. 前者는 黃連처럼 濕熱證에 쓰이며, 後者는 蒼朮처럼 寒濕證에 쓰임을 알 수 있다.

(3) “苦堅”

‘苦堅’에 대하여는 《素問·藏氣法時論》에 “腎欲堅, 急食苦以堅之⁴⁹⁾”라고 하여 최초로 언급이 된다. 이후에 《注解傷寒論》을 보면 “苦以堅之, 瓜蒌之苦以生津液”라 하고, 《醫學讀書記》에는 “堅者, 必以苦”라고 되어 있으며, 《本草備要》에서도 “苦能瀉熱而堅腎, 瀉中有補也”라 했다. 그러

42) 洪元植·金定濟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390.

43) 尹吉永 : 東醫學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125~126.

44) 編纂委員會 : 東洋學概論,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23.

45)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62.

46)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p2.

47) 吳貽谷의 표현대로 能瀉는 能泄과 通한다고 본다.(著者註)

48) 高曉山 : 前掲書 p172.

49) 洪元植 : 前掲書, p89.

41)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나 '苦堅'에 대해서는 現在의 中國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謝文光⁵⁰⁾은 歷代 文獻에 記載된 것을 土臺로 堅은 곧 堅實強壯의 뜻이니 즉 組織을 堅實하게 하고 臟腑機能을 強壯시키는 意味로 보았다. 그는 臟腑組織이 軟弱하고 脹滿된 病理變化와 이로 인해 形成된 臟腑機能의 低下를 다스린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苦味藥은 능히 熱邪와 濕邪를 除去함으로 臟腑組織의 軟弱하고 脹滿된 病理變化를 堅實하게 하여 그 機能을 회복시키는 것이 '苦能堅'의 實質精神이다."라고 설명하며 아울러 苦溫과 苦寒의 두 편중된 방향이 있는데, 苦寒之品은 臟腑組織 自體를 堅實하게 해주어 '堅陰⁵¹⁾'이라 稱하고 苦溫之品은 恢復力에 重點을 두어 臟腑組織의 機能을 強하게 하여 '堅氣'라고 稱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謝建軍⁵²⁾은 苦味が 능히 堅陰하는 것을 세방면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苦味の 燥濕하는 機能으로써 臟氣를 堅固하게 하고 濕邪의 症狀에 運用하는 것이고, 둘째는 苦寒한 味로 瀉火시켜 陰液을 保存하여 "火熱內盛"或은 "陰虛火旺⁵³⁾"에 活用하는 것이요, 셋째는 苦降瀉實하는 作用으로써 陽液을 救하고 實熱結滯의 證狀에 應用한다는 것이다.

以上的 내용을 보면 '苦堅'의 作用은 藥物自體가 生産하는 作用이라기 보다는 "苦泄"과 "苦燥" 등의 機能이 실현된 結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 <素問·藏氣法時論>에 "腎欲堅, 急食苦以堅之⁵⁴⁾"라고 한 것은 '堅陰'의 의미로서 보아야 한다.

3) 甘

<說文解字>에서 "甘⁵⁵⁾ 美也(羊部曰 美,甘也 甘爲五味之一 而五味之可口皆曰甘) ㄹ 口舍一 一,道也(食物不一 而道則一 所謂味道之腴也 古三切 古音在七部) 凡甘之屬皆ㄹ甘"라고 하여 아름답고 맛이 좋은 것으로, 단맛의 글자를 破字하면 입안에서 一을 머금고 있는 것이니 맛이 한결같다는 뜻으로 五味중에 甘味가 보다 基本이 될 수 있는 根據라고 할 수 있다.

<黃帝內經·藏氣法時論>⁵⁶⁾에는 "甘緩"이라고 하여 최초로 甘味の 성질을 언급하였고 以後에 諸家들이 이 글에 근거하여 甘味の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吳⁵⁷⁾는 甘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能補 能緩 能和한다. 모두 滋補 緩急 調和의 作用이 있다. 虛證과 擊急性疼痛에 많이 쓰이며 또 藥性을 調和하거나 혹은 調和脾胃한다. 예를 들면 黨蔘 黃芪는 능히 補氣하고 熟地黃은 능히 滋陰補血하고 甘草는 능히 緩急止痛하며 調和藥性한다. 이외에 甘味는 潤燥작용이 있어 예를 들면 甘草 蜂蜜 飴糖은 능히 潤肺止咳하고 蜂蜜은 또 능히 潤腸通便한다."

洪⁵⁸⁾은 甘味를 "補, 緩의 作用이 있다. 例로서 黃芪는 補氣하고, 阿膠는 補血하며, 甘草는 擊急을 緩解한다."라고 설명했다.

尹⁵⁹⁾은 소박한 경험에 의하여 "甘味를 먹으면 모든 機能이 緩和되어 躁急한 것이 누그러지고 痛症이 조금 감소해지며 中毒症狀이 다소 풀리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하여 "甘味, 淡味는 緩和, 利尿, 滋養 등의 效果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東洋學概論>⁶⁰⁾에서는 "단맛이 있는 약들은 대체로 滋養하고 완화시키는 作用이 있다. 예를

51) <素問·藏氣法時論>에 "腎欲堅, 急食苦以堅之"라고 하였다.

52) 高曉山 : 前掲書 p343.

53) <得配本草>에서는 曰: "蓋陰中邪火, 本非命門之眞火, 不妨用苦寒者除之. 若腎中之眞水不足, 眞火虛浮于上, 宜用二地以滋之, 水足火自歸臟也....."라고 되어있다.

54) 洪元植 : 前掲書, p89.

55) 段玉裁 :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2年, p202.

5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9.

57)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58) 洪元植·金定濟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390.

59) 尹吉永 : 東醫學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125~126.

60) 編纂委員會 : 東洋學概論,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23.

50) 高曉山 : 前掲書 p343.

들면 인삼, 황기, 산약, 단삼, 등은 양, 기를 자양하고 아교, 지황, 황정, 천문동, 맥문동과 같은 약들은 음, 혈을 자양하며 감초, 대추, 꿀, 엿과 같은 약들은 다 장부를 완화시킨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諸家들은 甘味の 作用을 內經의 ‘甘味는 늘어지게 한다’는 基本機能에서 발전시켜 “甘味는 體內에서 筋肉의 弛緩作用과 飢餓와 疲勞回復을 풀어주며 潤腸, 發生, 上行, 補氣, 補陽, 解毒, 緩和, 止渴生津作用을 나타낸다⁶¹⁾.”라고 本草學 교과서는 정리하고 있으며 淸의 汪昂은 이를 “甘者⁶²⁾; 能補 能和 能緩”라고 요약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 “甘補”

甘味가 補性이 있다는 것은 甘味の 가장 重要한 效能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甘草, 大棗 등은 모두 補養作用이 있으며, 《注解傷寒論》에서는 설명하길, “人參, 甘草之甘, 以益脾胃”라 하고, 《醫學發明》에서는 “甘生血, 陽生陰長故也”라고 하여 甘味の 補하는 作用은 補氣, 補血, 補陰, 補陽을 包括하고 있다. 그 예로 人參, 黃芪 등은 甘溫으로 補氣하며, 沙蔘, 麥門冬, 石斛 등은 甘寒으로 補陰生津하며, 虛證을 治療하는데 자주 사용한다.

高⁶³⁾는 “어떤 藥物은 ‘甘補’를 통과하여 ‘補益’의 效果에 도달하고, 어떤 것은 ‘瀉火’를 통하여 補益의 效에 도달하니, 예를 들면 《蘭室秘藏》에서 말하길, “甘能瀉火”라하고 《醫學發明》에서云하길 “炙甘草之甘, 以瀉火熱, 而補脾胃中元氣”라고 하니 炙甘草의 補益作用은 瀉火作用을 通過해서 도달된다.”라고 설명하였다⁶⁴⁾.

《內外傷辨惑論》에서 說明하길, “以人參之甘補氣”라 하고, 또 “脾胃不足 以甘補氣”라고 하였고, 《醫學讀書記》에서는 “甘以益虛也”, “甘潤生陰”라고 하고, 《金匱要略心典》에서云하길 “人參, 甘草之甘補益中氣”라고 하니 이는 甘味藥物이 直接的으로 補益作用이 있음을 표현함이다.

(2) “甘緩”과 “甘和”

甘味에는 “和”와 “緩”의 作用이 있는데 有些書籍將它分別說明, 認爲 緩이라는 의미는 甘味를 갖추고있는 모든 만물은 緩急과 緩和하는 작용이 있다. 예를 들면 甘麥大棗湯의 甘平은 능히 臟躁를

緩解시키고, 養血安神시킨다. 《醫學入門》에서도 “甘緩爲緩其大熱, 大寒也”이라 했다.

“和”의 主要內容은 中和시키는 것으로 百藥을 調和시키는 作用이다.

“緩”과 “和”의 作用에는 서로 일정한 聯系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本草略要》에서 蜂蜜을 論할 때 “甘緩可以去急, 故止心腹肌肉瘡瘍諸病, 甘緩可以和中, 故能調營衛, 通三焦, 除衆病, 和百藥, 而與甘草同功……”라고 하여 ‘緩’의 性質에 ‘和’도 포함되어 있는 듯 설명하였다. 《本草衍義》에서는 “欲緩則用甘, 不欲則弗用”이라 하고 《注解傷寒論》에서는 “大棗, 甘草, 通草之甘以緩陰血.”이라 하여 甘味가 ‘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甘味는 調和諸藥, 緩和藥性의 작용이 있다.

4) 辛

《說文解字》에서 “辛⁶⁵⁾ 66) 秋時萬物成而?(律書曰 辛者,言萬物之新生 故曰辛 律歷志曰 悉新於辛 釋名曰 辛,新也 物初新者,皆收成也) 金剛味辛 辛痛即泣出 ㄱ 一辛 辛罪也 辛承庚 象人股凡辛之屬皆ㄱ辛”라고 하여 매운맛은 가을철 萬物이 成熟했을 때이며, 이를 《律書》에서 ‘辛者,言萬物之新生 故曰辛’이라 하고 《律歷志》에 曰 ‘悉新於辛’이라 하고 釋名에 曰 ‘辛, 新也 物初新者, 皆收成也’라고 하여 萬物이 새롭게 시작할 때에 收斂하여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金의 剛한 맛이며, 자극이 강하여 아파 우는 形象이고, 罪받는 形象이며, 十干중 하나로서 庚다음 辛으로 이어받아 사람의 股

62)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p2.

63) 高曉山 : 前揭書 p172.

64)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65) 段玉裁 :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2年, p741.

66) 辛 秋時萬物成而?(律書曰 辛者,言萬物之新生 故曰辛 律歷志曰 悉新於辛 釋名曰 辛,新也 物初新者,皆收成也) 金剛味辛(謂成熟之味也) 辛痛即泣出(故以爲艱辛字) ㄱ 一辛(一者,陽也 陽入於辛 謂之愆陽 息鄰切 十三部) 辛罪也(辛痛泣出 罪人之象 凡罪辜辭皆ㄱ辛者,由此) 辛承庚 象人股(豕大一經)凡辛之屬皆ㄱ辛

6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62.

를 상징한다. 따라서 <此事難知>에서 나온 “辛爲天之味，能補地之分，自上而降于下也”라고 하여 맵다는 맛을 天干의 金인 辛이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天之味’라고 표현한 것이 이해된다.

<黃帝內經·藏氣法時論>⁶⁷⁾에는 “辛散⁶⁸⁾”이라고 하여 최초로 辛味의 성질을 언급하였고 以後에 諸家들이 이 글에 근거하여 辛味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吳⁶⁹⁾는 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能散 能行. 즉 發散과 行氣작용이 있다. 外感表證과 氣血阻滯의 證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蘇葉 薄荷는 능히 發汗解表하고 木香은 능히 行氣하며 川芎은 능히 行血한다.”

洪⁷⁰⁾은 辛味를 “散, 行의 作用이 있다. 例로서 荊芥는 風寒을 散하고, 砂仁은 行氣하며, 川芎은 活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尹⁷¹⁾은 소박한 경험에 의하여 “辛味는 술맛(酒味)과 같은 것, 고추맛 같은 것, 도라지맛 같은 것,薄荷맛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맵게 느끼어 지는 것, 아리게 느끼어 지는 것, 화하게 느끼어 지는 것, 화끈하게 느끼어 지는 것 등의 刺戟味이다. 대체로 辛味를 먹으면 發熱이 되고 發汗이 되며 흥분되고 熱感을 느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한다. 그런데 이중에는 薄荷와 같이 서늘한 感을 느끼는 辛味도 있다.”라고 하여 “辛味는 發熱, 發汗, 興奮 등의 效果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東洋學概論>⁷²⁾에서는 “매운 맛이 나는 약은 대체로 땀을 내서 피부로 발산시키며 기가 잘 돌고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諸家들은 辛味의 作用을 內經의 ‘辛味는 흠어지게 한다.’라는 基本機能에서 발전시켜 “辛味는 體內에 들어가서 燥熱, 發散, 利竅, 潤燥, 開腠理, 上升, 發汗, 健胃, 食慾을 增進시킨다⁷³⁾.”라고 本草學 교과서는 정리하고 있으며 滄의 汪昂은 이를 “辛者⁷⁴⁾; 能散 能潤 能橫行”라고 요약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 “辛散”

<注解傷寒論>에 말하길 “辛者 散也, 半夏之辛, 以散逆氣”, “半夏, 生薑之辛, 以散滯氣”, “細辛, 乾

薑之辛, 以散水寒”이라 하고 <醫方入門>에 설명하길 “辛散, 謂散其表? 拂鬱之氣也”라 했으며, <醫學讀書記>에서 “半夏, 乾薑之辛, 能散其結”이라 하니 이와 같이 서술하는 것을 보면 ‘辛散’을 表邪를 흠는 것과 內結을 흠어내는 두가지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2) “辛行”

<內經>에 辛은 能히 行한다는 說⁷⁵⁾이 있는 然後에 <醫學啓源>에도 亦是 “辛瀉氣”라고 記載되어 있고, <內外傷辨惑論>에는 “辛味下咽, 先攻瀉肺之氣, 氣者, 元氣也”라고 記載되어 있어 辛味에 行氣와 破氣의 作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3) “辛潤”

辛味에는 潤한 作用이 있다는 것은 <素問·藏氣法時論>⁷⁶⁾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라는 부분에서 처음 나온다. “辛潤”의 意義는 歷代醫家들이 다양하게 論述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成無己는 “辛以潤之, 乾薑之辛, 以固陽虛之汗, 津液不足而爲渴”라고 하며, <素問玄機原病式>에는 “辛熱之藥, 能開發腸胃鬱結, 使氣液宣通, 流濕潤燥, 氣和而已…”라고 하여 鬱滯를 풀어서 津液을 통하게 하여 ‘辛潤’을 설명하고 있다. <蘭室秘藏>에서는 “如少陰不得大便以辛潤之”라 하여 少陰人에게 巴豆를 먹이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하였으며, <湯液本草>에도 亦是 “辛能潤燥”의 記載가 있다. <此事難知

68) <藏氣法時論>에서는 五味중 ‘辛散’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것도 역시 天干의 辛金을 사용하고 ‘天之味’라고 일컬어지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著者注)

69)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70) 洪元植·金定濟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390.

71) 尹吉永 : 東醫學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125~126.

72) 編纂委員會 : 東洋學概論,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23.

7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62.

74)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p2.

75) 高曉山 : 前揭書 p171.

76) 洪元植 : 前揭書 p88.

6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9.

》에 이르길 “辛以潤之，爲腎惡燥也”라 하여 內經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張景岳은 辛潤을 다음과 같이 理解하였다. “腎爲水臟，藏精者也，陰病者苦燥，故宜食辛以潤之。蓋其能開腠理致津液者，以辛能通氣也，水中有真氣，唯辛能達之，氣至水亦至，故可以潤腎之燥”라고 하여 張景岳은 辛潤의 作用이 辛味 自體의 作用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通氣시켜서 氣가 通하면 津液도 通하는 概念으로 認識하였다. <本草綱目>의 柏子仁 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柏子仁性平而不寒不燥，味甘而補，辛而能潤”이라 하고 繆希雍도 亦是 “五味之中 惟辛通四氣，復兼四味. <經>曰：腎苦燥，急食辛以潤之，菟絲子之屬是也”라고 하니 李時珍과 繆希雍等은 辛潤의 作用을 藥物 自體에서 生産된 것으로 理解하고 있으나⁷⁷⁾, 辛潤이 辛味の 自體의 作用이라고 主張하는 醫家들은 菟絲子⁷⁸⁾와 柏子仁의 滋潤作用을 例⁷⁹⁾로 드는데 이에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學者들은 菟絲子와 柏子仁의 潤燥작용은 가지고 있는 기름기에 의한 효과이지 辛味에 의한 效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張元素는 辛潤의 藥物의 예로서 黃柏, 知母等을 들어서 張氏는 “辛潤”을 滋陰降火의 藥物作用으로 이해하고 있다. 陳松育도 “‘辛潤’은 滋陰降火作用으로 腎陰虛로 인한 相火가 旺盛할 때 使用하는 知母와 黃柏이 代表的인 作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黃柏 知母가 歷代文獻에서 辛味를 포함하고 있다는 記載를 찾을 수가 없어서 부정확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⁸⁰⁾.” 그럼 辛味가 腎燥를 治療할 수 있는 대표적인 藥物은 무엇이 될까? 陳氏는 肉桂, 細辛의 類가 된다고 하여, 이 藥物의 味는 辛으로 腎으로 入하여 腎臟의 氣化作用을 促進시켜 津液을 化生하고 輸布하여 腎燥의 症狀를 治療하는데 有效하다고 主張한다.

朱偉常은 歷代의 辛潤에 대한 理解와 臨床經驗을 總括하여 辛潤의 作用은 腠理를 열어 津液을 이르게 하여 潤燥하게 한다. 따라서 辛味藥이 肺에 들어간 후 “開腠理 致津液”의 作用이 到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發汗解表와는 틀린 것이다. 內經에서의 辛潤은 腎燥를 治療한다고 했

으나, 歷代醫家들은 점점 辛潤을 肺, 胃, 大腸과 肝의 燥를 다스리는데 사용하였다⁸¹⁾. 이는 痰濕水飲의 邪가 阻滯되어 腠理를 閉塞하여 津液이 行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辛味の 辛潤作用은 濕邪를 흠어서 腠理를 開하여, 津液을 宣通시켜 나타나는 작용이다.

또 다른 견해는 辛潤의 作用은 腎陽虛衰로 氣가 不包되는 경우로 辛溫助陽之品을 이용하여 陽氣를 振興시키고 “氣至水亦至”라 하여 腎陽微衰하여 氣가 不布하여 燥한 症狀를 治療하니 潤燥의 作用을 모든 燥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腎陽이 微衰한 燥證에 사용한다⁸²⁾.

따라서 辛潤作用은 鬱滯를 풀어 腠理를 열어 津液을 通하게 하는 작용과 腎陽의 虛衰를 振興시켜 氣化를 通하여 辛潤을 꾀하는 두방면이 있으며, <素問·藏氣法時論>⁸³⁾ “腎苦燥，急食辛以潤之，開腠理，致津液，通氣也”의 의미에서는 腎陽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內經에 접근하는 思考라고 생각된다.

* 辛燥는 辛潤과 相反된 作用으로 大多數의 辛味藥에 있는 효능이다. 辛味藥은 대부분 燥濕의 作用이 있어 辛味는 風藥에 많이 쓰인다.

5) 鹹

<說文解字>에서 “鹹⁸⁴⁾ 銜也(以疊韻爲訓) 北方味也(酸苦辛甘下不著某方之味 此著之者, 錯見也) ㄹ 鹵 咸聲(胡薺切 古音在七部)”라고 하여 ‘함’(재갈함, 머금다.)으로 읽고 北方의 맛으로 짠맛을 표현한다.

78) 高學敏 : 中藥學, 北京, 中國醫藥科技術出版社, 1990, p20.

款冬花의 潤肺止咳 作用과 菟絲子의 潤補腎作用을 “辛以潤之”의 例로서 敍述하였음. 그러나 이 冊에서는 대다수의 辛味는 散·行 作用이 있는 것이지 辛潤의 作用으로 代表되기는 어렵다고 敍述하고 있다.

79) 全國統編敎材 : 中藥學, 1978

80) 高曉山 : 前掲書 p343.

81) 高曉山 : 前掲書 p343.

82) 高曉山 : 前掲書 p343.

83) 洪元植 : 前掲書 p88.

84) 段玉裁 :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2年, p586.

77) 高曉山 : 前掲書 p343.

《黃帝內經·藏氣法時論》⁸⁵⁾에는 “鹹軟”이라고 하여 최초로 鹹味의 성질을 언급하였고 以後에 諸家들이 이 글에 근거하여 鹹味의 意味를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吳⁸⁶⁾는 鹹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能軟堅 能下한다. 모두 軟堅散結과 瀉下作用이 있다. 痰核과 便秘 等證에 많이 이용된다. 예를 들면 昆布 海藻 牡蠣 등은 능히 軟堅散結하여 痰核瘰癧를 治療한다. 芒硝는 능히 軟堅瀉下하여 燥結便秘를 治療한다.”

洪⁸⁷⁾은 鹹味를 “軟堅, 潤下의 作用이 있다. 例로서 海藻와 牡蠣는 瘰癧를 治하며, 芒硝는 燥結된 大便을 潤下한다.”라고 설명했다.

尹⁸⁸⁾은 소박한 경험에 의하여 “鹹味는 다량을 먹으면 吐하고 혹은 泄瀉가 나며 渴症이 甚하여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며 또 腫氣에 鹽餅을 붙이면 腫硬한 것이 물러지고 苜蓿귀(채소)같은 것은 소금에 저리면 풀이 죽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여 “鹹味는 涌泄, 解熱, 軟堅 등의 效果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東洋學概論》⁸⁹⁾에서는 “짠맛이 있는 약들은 다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하며 마른 것을 축여서 내보낸다. 예를 들면 곧포, 해조, 와룡자, 해부석과 같은 약들은 담(건락성 물질과 점액)이 풍부한 나력을 낮게 하고, 망초는 장을 축여서 너무 딱딱히 굳어 나가지 못하는 대변을 무르게 하여 내보낸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諸家들은 鹹味의 作用을 內經의 ‘鹹味는 무르게 한다.’는 基本機能에서 발전시켜 “鹹味는 體內에서 柔軟作用을 일으켜 軟堅, 癥結, 沈下하여 治療瘰癧에 有效한 效果를 얻는다.”라고 本草學 교과서⁹⁰⁾는 정리하고 있으며 淸의 汪昂은 이를 “鹹者⁹¹⁾; 能下 能軟堅”라고 요약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 “鹹軟”

《注解傷寒論》에서 “鹹以軟之, 牡蠣之鹹, 以消胸脇之滿”라고 표현하였고, 《本草略要》에는 “牡蠣鹹以軟堅, 化痰, 消瘰癧結核……”이라 하고 海藻를 설명할 때는, “鹹潤下而軟堅, 寒行水以泄熱, 故

消瘰癧結核陰潰之堅聚, ……”이라 하니 鹹味가 軟堅의 作用이 있다는 것을 瘰癧積聚를 消散하는 作用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鹹軟’은 牡蠣처럼 軟堅하여 瘰癧과 痰核을 없애는 것을 설명한다.

(2) “鹹下”

鹹下는 鹹味에는 瀉下作用이 있음을 설명한다. 《注解傷寒論》에서는 “芒硝之鹹以攻蘊熱”라 하고, 《醫學入門》에도 “鹹軟, 謂軟其大便燥結之火熱也”이라 하여 大熱을 瀉下는 作用으로 보았고⁹²⁾, 《本草略要》에서는 “朴硝辛能潤燥, 鹹能軟堅, 苦能下泄……”라하고, 《神農本草經》은 朴硝에 대하여 “主治百病, 除寒熱邪氣, 逐六腑積聚, 結固留癖……”라고 하였다. 따라서 ‘鹹下’는 芒硝처럼 능히 瀉下하여 通大便燥結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6) 淡

《說文解字》⁹³⁾에서 “淡 薄味也(醴之反也) 酉部 曰 醴, 厚酒也 又澹淡亦作滔淡 水滿兒 楊雄賦 柅鬲泔淡 應劭曰 泔淡, 滿也 按泔淡訓滿, 謂淡爲臆之假借) ㄆ 水 炎聲(徒敢切 八部)”라고 하여 옅은 맛으로 진한 맛의 반대로 설명되어진다. 淡淡한 것이 물이 많다는 것도 된다.

吳⁹⁴⁾는 淡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能滲 能痢한다. 즉 모두 滲瀉利尿의 작용이 있다. 水濕停滯와 小便不利 水腫等症에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猪苓, 茯苓 등은 모두 능히 利水滲瀉한다.”

86)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87) 洪元植·金定濟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390.

88) 尹吉永 : 東醫學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125~126.

89) 編纂委員會 : 東洋學概論,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23.

9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63.

91)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p2.

92) 단 《醫學入門》은 鹹軟과 鹹下를 같은 작용으로 보고있다.

93) 段玉裁 : 前揭書 p562.

94) 吳貽谷主篇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5

85)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9.

洪⁹⁵⁾은 淡味를 “滲瀝하여 小便을 通利하는 作用이 있다. 例로서 通草 茯苓등이다.”라고 설명했다.

尹⁹⁶⁾은 소박한 경험에 의하여 “淡味를 먹으면 小便이 順해지며, 滋養性인 것이 감미롭고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여 “甘味, 淡味는 緩和, 利尿, 滋養 등의 效果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東洋學概論》⁹⁷⁾에서는 “습습하여 별 맛이 없어 보이는 복령, 목통, 활석 같은 것은 체내에 저류된 수분을 소변이 되어 나가게 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諸家들은 淡味の 作用을 內經의 ‘淡味는 滲泄한다’는 基本機能에서 발전시켜 “滲泄을 爲主로 하는 것이 많다. 淡味는 下行 利尿 利尿作用이 있다.”라고 本草學 교과서는 정리하고 있으며 滄의 汪昂은 이를 “淡者⁹⁸⁾; 能利尿 能滲泄”라고 요약해서 定義를 내리고 있다.

(1) “淡能滲泄”

李杲는 “滲卽爲升, 泄卽爲降”이라 하여 利下竅는 卽 利小便으로 이해하고 있다⁹⁹⁾. 《儒門事親》에는 “《素問》一書, 言辛甘發散, 淡滲泄爲陽, 酸, 苦, 鹹涌泄爲陰, 發散歸于汗, 涌歸于吐, 泄歸于下. 滲爲解表同于汗, 泄爲利小便同于下, 殊不言補”라고 하여 張氏는 ‘滲’을 發汗으로 이해하고 ‘泄’을 利小便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大多數의 醫家들은 滲水濕을 滲한다고 記載하였으니, 그 예로 《局方發揮》에서 “挾濕者, 淡以滲之”, “淡滲治濕”라고 했다.

(2) “淡能利尿”

淡味는 下竅를 通利하거나 解結하는 作用이 있으니 《湯液本草》의 猪苓條에서 보면 “淡以利竅”라고 하고, 《推求師意》의 滑石에서 보면 “味淡, 將以利竅解結, 通氣潤以潤燥”라고 하였다.

淡味는 能히 利小便하는 作用이 있다. 《蘭室秘藏》에서는 “淡滲之味利小便”라고 하였고, 《顧松園醫鏡》에서는 “淡之一味, 無藏可歸, 專入太陽, 而利小便”이라 하여 淡味는 太陽으로 入함을 주장하였고, 《金匱要略心典》에선 “苓, 朮, 猪, 澤, 甘淡滲瀝使腸間之水從小便排出”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滲泄과 利尿의 作用으로서 淡味는 小便

을 利케하는 作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五味의 藥理作用〉

例컨대, 辛味の 藥物에는 대개 揮發油가 含有되었고, 酸味の 藥物에는 대개 有機酸이 含有되었으며, 甘味の 藥物에는 대개 炭水化合物이 含有되었고, 苦味の 藥物에는 알칼로이드, 配糖體 혹은 苦味質이 含有되고 있는 등이다.

3. 五味와 陰陽五行

1) 五味와 陰陽

五味의 陰陽에 대하여 최초로 言及된 곳은 역시 《內經》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¹⁰⁰⁾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陰味出下竅 陽氣出上竅 味厚者爲陰 薄爲陰之陽 氣厚者爲陽 薄爲陽之陰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 氣味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이라했고 이를 張¹⁰¹⁾은 “言氣味固分陰陽 而味中復有陰陽之別 辛走氣而性散 甘乃中央之味 而能灌溉四旁 故辛甘主發散 爲陽也 苦主泄下 而又炎上作苦 酸主收降而 又屬春生之木 味皆能上湧[涌]而下泄 故酸苦涌泄爲陰也”이라고 하여 辛味는 主氣하고, 散하는 性質이 있고, 甘味는 中央의 味로서 四旁을 대주니 이 두 味는 陽이라 하였고, 苦味는 泄下하고 酸味는 收降하니 陰이라 하였다¹⁰²⁾. 또 張介賓¹⁰³⁾은 “此言

96) 尹吉永 : 東醫學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p125~126.

97) 編纂委員會 : 東洋學概論,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24.

98)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p2.

99) 高曉山 : 前揭書 p174.

100) 洪元植 : 前揭書 p23.

101) 張隱庵·馬元臺 : 黃帝內經素問靈樞,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民國70年, p40.

이하 張隱庵이나 馬元臺 중 한사람만 引用하여 표기함.

102) 苦味는 炎上하여 作한 것이 泄下하고, 酸味는 春生之木味인데 收降하니 모두 능히 上湧而下泄하므로 酸苦는 陰이 된다는 주장은 한번 生長하면 收斂하듯이 上升한 然後에는 下降하기 때문에 機能的인 五行의 性에서 氣質的인 味로 들어와서는 酸苦가 陰이 되는 것이다.(著者註)

95) 洪元植·金定濟 :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p390.

五味之陰陽也 辛散甘緩 故發肌表. 酸收苦泄 故爲吐瀉 涌, 湧同”이라 하여 辛甘은 肌表를 發하여 陽이 되고, 酸苦는 吐瀉를 시켜 陰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高¹⁰⁴⁾는 “分而言之 氣爲陽 味爲陰. 合而言之 氣不離味 味不離氣. 故氣味辛甘 從中達外 主能發散 故爲陽 氣味酸苦 從重上下 主能涌泄 故爲陰”라고 하여 辛甘은 發散力으로 遠心力을 表現하였고, 酸苦는 收斂力으로 求心力을 表現하였다.

《素問·至眞要大論》에도 <陰陽應象大論>에서와 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鹹味와 淡味가 추가되어 서술되어있다. “帝曰: 善 五味陰陽之用何如 岐伯曰: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¹⁰⁵⁾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 六者或收或散 或緩或急 或燥或潤或軟或堅 以所利而行之 調其氣使其平也¹⁰⁶⁾.”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高¹⁰⁷⁾는 “五味陰陽之用 彼此相濟而成. 如辛主發散 從內而外 必濟以甘 故辛甘之味 爲能發散而屬乎陽. 苦主涌泄 從中上涌 從中下泄 必濟以酸 故酸苦之味 爲能涌泄而屬于陰. 五味之外 復有淡味 淡主滲泄. 能滲泄 即能行泄 故 淡味滲泄爲陽. 此辛甘酸鹹淡六者 氣味雖殊 功用相濟”라고 하며 辛甘에서 辛味가 發散을 하며 甘味가 이를 조절해주어서 陽이 되고, 酸苦에서 苦味가 涌泄하며 酸味가 이를 조절해주어서 陰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시 氣味가 서로 相濟함을 볼 수 있다¹⁰⁸⁾.

《黃帝內經類析》¹⁰⁹⁾에서는 李東垣의 설명을 引用하여 “味薄者升, 氣薄者強; 氣厚者 浮, 味厚者 沈,”이라하고 다시 李時珍의 說을 引用하여 “酸鹹無升 甘辛無降 寒無浮 熱無沈”이라 하여 氣味가 서로 依存關係에 있다고 하여 味の 陰陽을 升降으로써 설명하려 하였다.

《本草綱目》¹¹⁰⁾에서도 “李東垣 曰 一物之內氣味兼有一藥之中理性具焉 或氣一而味殊 或味同而氣異 氣象天溫熱者 天之陽 涼寒者 天之陰 天有 陰陽 風寒暑濕燥火三陰三陽上奉之也 味象地 辛甘淡者 地之陽 酸苦鹹者 地之陰 地有陰陽金木水火土生長化收藏下應之也 氣味薄者 輕清成象本乎天者 親上也 氣味厚者 濁成形 本乎地者 親下也”이라 하여 辛甘淡은 地之陽으로, 酸苦鹹은 地之陰으로 표현하고 있다¹¹¹⁾.

따라서 辛甘淡味가 陽에 屬해서 天과 親하고, 酸苦鹹味가 陰에 屬하여 地와 親함을 알 수 있다.

2) 五味와 五行

우리는 항상 궁금하게 여기던 것이 왜 辛味는 發散하는 陽의인 맛인데 配屬은 金에 屬해 있으며, 어째서 苦味는 涌泄하는 맛으로 陰的인 맛이 火에 屬해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 왔었다. 이에 著者는 生成과 原來의 五味의 屬性을 理解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生成에 의한 五味配屬

五味가 五行의 木, 火, 土, 金, 水에 따라서 酸, 苦, 甘, 辛, 鹹이 配屬되는 것은 어떠한 原理에 의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우선 五味가 生成된 緣由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발표한 論文¹¹²⁾에서와 같이 《書經·洪範》을 다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一五行은 一曰水요 二曰火요 三曰木이요 四曰金이요 五曰土니라 水曰潤下요 火曰炎上이요 木曰

104)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39.

105) 張介賓은 涌을 吐라고 하였고, 泄을 瀉라고 하였으며, 滲泄을 利小便으로 표현하였다.

程士德 :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56.

106) 洪元植 : 前掲書 p304.

107) 高士宗 : 前掲書 p684.

108) 뒤의 부분의 “或收或瀉……”의 부분의 해석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寇宗奭의 《本草衍義·序例上》에 나온다. 五氣가 生成된 然後에야 五味가 各各의 氣에 對應하여 生成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109)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內蒙古,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314.

110) 李時珍 : 本草綱目(文淵閣 四庫全書 第772冊), 서울, 圖書出版 鼎談, p351.

111) 味の 陰陽에 대하여 보다 많은 文獻을 찾고자 하면 高曉山的 <中藥藥性論>冊 165 쪽을 참조할 것

112) 金秉洙 : 味에 관한 文獻의 考察(I), 대전, 韓醫學研究所, 1997, p229~233.

103)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18.

曲直이요 金曰從革이요 土爰稼穡이니라 潤下는 作鹹하고 炎上은 作苦하고 曲直은 作酸하고 從革은 作辛하고 稼穡은 作甘이니라¹¹³⁾”라고 하여 味가 水 火 木 金 土의 潤下 炎上 曲直 從革 稼穡에 의하여 鹹 苦 酸 辛 甘이 作한다고 하였다.

또 內經에서도 五味의 生成에 따라 五行을 配屬하였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말하길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이라 하였으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木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火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土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
金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水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표 3-1> <陰陽應象大論>에 나온 五行配屬圖 따라서 五味가 五行의 木火土金水에 配屬이 되는 이유는 五味의 生成이 五行에 의하여 나온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酸味는 木의 結果物이며, 苦味는 火의 結果物이고, 甘味는 土의 結果物이며, 辛味는 金의 結果物이고, 鹹味는 水의 結果物인 것이다.

(2) 五味의 特性

다음은 <素問·至真要大論>¹¹⁴⁾에 언급된 文章으로 五味의 相互作用과 五行의 五味特性을 理解할 수 있는 部分이다. “帝曰：善 五味陰陽之用何如 岐伯曰：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 六者或收或散 或緩或急 或燥或潤或軟或堅 以所利而行之 調其氣使其平也.”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寇宗奭의 <本草衍義·序例上>에 나온다.

寇宗奭은 “天地既判 生萬物者五氣耳. 五氣定位則五味生. 故曰生物者 氣也 成之者 味也¹¹⁵⁾.”라고 하여 氣가 味를 生한다고 했으며 다시 실례를 들어 설명하니 “以奇生則成而偶 以偶生則成而奇. 寒氣堅 故其味可以用以軟; 熱氣軟 故其氣可以用以堅; 風氣散 故其味可以用以收; 燥氣收, 故其氣可以用以散, 土

者冲氣之所生 冲氣則無所不和 故其味可以用以緩. 氣堅則壯 故苦可以養氣. 脈軟則和 故鹹可以養脈. 骨收則強 故酸可以養骨. 筋散則不擊 故辛可以養筋. 肉緩則不癢 故甘可以養肉. 堅之以後可以軟 收之而後可以散. 欲緩則用甘 不欲則非用 用之不可太過 太過亦病矣. 古之養生治疾者 必先通乎此 否則能已人之疾者蓋寡矣¹¹⁶⁾¹¹⁷⁾.”라고 하여 먼저 五行의 氣가 있고 그 氣에 相對되는 味가 있어서 氣가 散하면 味가 收하고 氣가 收하면 味가 散하며, 氣가 軟하면 味가 堅하려하고 氣하고 堅하면 味는 軟하려고 한다 이것이 《素問·藏氣法時論》에서 말한 “此五者 有辛酸甘苦鹹 各有所利 或散或收或緩或急或堅或軟 四時五臟 病隨五味所宜也¹¹⁸⁾”라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또, <神農本草經疏>¹¹⁹⁾에는 다음과 같이言及되어 있다. “天一生水 地六成之 地二生火 天七成之 天三生木 地八成之 地四生金 天九成之 天五生土 地十成之 水曰潤下 潤下者 作鹹 火曰炎上 炎上作苦 木曰曲直 曲直作酸 金曰從革 從革作辛 土受稼穡 稼穡作甘 本乎天者 親上 本乎地者 親下 氣味多少 各從氣其類也 凡言酸者得木之氣 言辛者得金之氣 言鹹者得水之氣 言苦者得火之氣 言甘者得土之氣 惟土也 寄旺於四季 生成之數 皆五 故其氣平 其味甘而淡 其性溫和而無毒 土德冲和感而類之 莫或不然 固萬物之所出 亦萬物之所入乎 此物之味資乎地者也”라고 하여 一六, 二七, 三八, 四九, 五十의 順으로 萬物이 生하여 <洪範>에서 보듯이 潤下, 炎上, 曲直, 從革, 稼穡으로 생긴 五味가 五行의

114) 洪元植 : 前掲書 p304.

115) 寇宗奭 : 本草衍義(歷代中醫珍本集成 第六冊),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

116) 寇宗奭 : 本草衍義(歷代中醫珍本集成 第六冊),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4.

117) 각각 五味의 屬性을 좇아 五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苦味 陽氣, 鹹味 養脈, 酸味 養骨, 辛味 養筋, 甘味 養肉이 된다. 五味의 生成에서 시작하여 각 味의 성질을 표현하여 五體에 對한 作用까지 설명한 文章이다. 단 五臟에 對한 概念은 없다.

118) 程士德 : 前掲書 p.357~358

119) 繆希雍 : 神農本草經疏(文淵閣 四庫全書 第775冊), 서울, 圖書出版 鼎談, p291.

113) 金赫濟 : 書傳 <서울. 明文堂, 1981> p.253~254

氣를 얻어서 萬物을 生成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酸味가 木에 屬하고, 苦味가 火에 屬하고, 甘味가 土에 屬하고, 辛味가 金에 屬하고, 鹹味가 水에 屬함을 이와 같이 알 수 있다.

이제 다음은 구체적으로 酸 苦 甘 辛 鹹의 각각의 五行상의 성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① 金과 辛

金性은 收斂을 主管하지만 辛味는 金味가 되어 散을 主管하고 收斂은 主管하지 않는다. 이것은 藥의 氣味에는 體와 用이 있어 相反하되, 사실은 相成하므로 金味를 얻으면 모두 木의 氣를 얻기 때문이다. 木氣의 上達은 이것이 散을 主管하는 것이요, 木의 氣가 溫한 것은 寒을 除去하고, 木의 氣가 宣한 것은 閉를 除去하기 때문이다¹²⁰⁾.

② 土와 甘

甘味를 느낄 때는 口腔의 모든 筋肉이 弛緩해지며, 입맛을 다시고(玩味) 飢餓과 疲勞를 신속히 회복한다.

小兒와 大人이 糖粉을 먹으면 顔面筋肉이 絞緩해지며 만족한 表情이나 이와 비슷한 表情을 한다. 그러므로 甘補, 甘緩은 이런 作用을 말하는 것이요, 甘先入脾도 이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따라서 緩急, 上行, 發生, 潤腸, 補氣, 補陽, 解毒 등을 할 病症에는 甘味의 藥物을 사용한다¹²¹⁾.

③ 木과 酸

酸味는 辛味와 같이 相反하되 亦是 相成하여 된 것이니, 金木交合의 理致이다. 木性이 發散하되 홀로 味가 散하여 收斂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酸味는 口腔 안의 모든 筋肉을 收縮하는데, 특히 兩側이 더 緊堅하여진다. 또 酸味의 藥은 收斂作用이 있어서 에너지의 散失을 阻止하고 咳嗽, 遺精, 小便不禁 등에 使用된다. 대체로 이것은 收縮性으로 인하여 氣孔, 汗腺, 括約筋 등이 축소하기 때문이며, 酸收, 酸斂은 이런 作用을 말한 것이요, 또는 酸先入肝도 그런 作用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收斂, 收濕, 斂散, 斂熱, 活血, 束表할 病症에 酸味의 藥物을 사용한다.

酸味는 주로 收斂하지만 酸의 極한 것은 도리어 催吐의 作用이 있다. 이는 마치 辛味가 升散은 하지만 辛味가 極한 것은 溫降作用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物上極則反下物下極則反上の 理致이다. 그리고 過酸證은 肝의 病的 變化에 起因되며, 妊婦가 神經質이 되고 감정이 극렬해지는 것은 모두 肝에 관련된 때문이며, 酸味의 生食物을 요구하는 것은 肝의 요구 때문인데, 이것은 모두 酸과 肝이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¹²²⁾.

④ 火와 苦

苦味를 느낄 때에는 침(唾液)을 삼키거나 뱉는다. 辛味는 興奮作用이 있고, 苦味는 沈靜作用이 있다. 그러므로 下劑는 모두 苦味性 物質로서 苦寒, 降泄이 서로 관련되어 下熱, 沈靜, 降泄의 效力이 있다.

대개 苦는 火味인데, 苦味가 반드시 火를 補하지 못하고 도리어 火를 瀉하는 것은 “物極則復 陽極陰生 陰極陽生”의 原理인 까닭이다.

예를 들면 黃連의 味는 正苦이므로 心臟에 들어가서 火를 瀉하며, 梔子는 味가 쓰고 그 모양이 心包와 같으므로 包絡의 火를 瀉하며, 連翹는 心包의 象을 하고 味가 苦하며 質이 輕揚하여 三焦의 火를 맑게 하며, 黃芩은 味가 苦하고 根의 中이 비어 三焦의 火를 瀉하고 相火를 맑게 한다¹²³⁾.

⑤ 水와 鹹

鹹味는 舌面과 口蓋가 柔壓의 動作을 한다. 鹽分은 여러 가지 物質을 柔軟하게 하고 溶解시킨다. 신선한 野菜類에 鹽分을 加하면 휘주그레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吐血, 咯血 때에 食鹽을 먹으면 止血하게 되는 것은 血液의 激刺한 循環機能을 부드럽게 하는 까닭이며(血得鹹凝滯), 癩疾發作 때 食鹽을 먹으면 安靜의 效果를 보게 되는 것은 筋肉의 痙攣緊急을 柔軟하게 하기 때문이다.

血液의 循環機能을 牽制하는 것은 水克火, 즉 腎의 作用이요, 筋肉의 拘攣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肝主筋의 이치이고, 水生木이니 그 鹽分의 作用이 腎藏에 속한 것이다. 또 飲食을 짜게 먹는 사람은 대개 精力이 旺盛하지 못하고 性慾이 不振하며 體質이 靜의이다.

120)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p53.

121) 申佶求 : 前掲書 p53~54.

122) 申佶求 : 前掲書, p55.

123) 申佶求 : 前掲書 p55.

鹹味性 物質이 生活力, 즉 活動을 抑制하는 것이 사실인데, 活動을 抑壓하는 힘은 陰이요, 陰은 水요, 水는 腎에 屬하므로 鹹味性 物質은 腎에 支配된다. 鹽分을 많이 攝取하면 多量의 水分(所謂 汗液)을 要求하게 되는데, 水分의 要求는 腎臟의 生理的 要求에 起因한 것이다. 또 民間에서 火傷에 소금을 참기름에 개어서 바르거나, 혹은 다른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 두면 神效하며, 밥이 탈 때나 숯불에(불내; 炭酸가스가 날 때) 소금을 뿌리면 단내(焦臭香)가 안나고 불내가 없어지는 것은 水克火와 鹽의 關聯性을 입증하는 예가 된다. 또 우리 體內에 鹽分이 汗腺으로 排泄되는 외에 대부분이 小便으로 排泄된다. 그러므로 鹹軟, 鹹走血, 血得鹹凝滯, 鹹先入腎 등과의 關聯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軟堅, 凝結, 沈下할 病症에 鹹味の 藥物을 사용한다¹²⁴⁾.

⑥ 淡味

味の 特色이 없는 純味를 淡味라고 한다. 淡味는 口腔에서 別로 變化를 일으키지 않으나 천연味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까닭은 淡味性 物質도 그 味覺에 의하여 그 物質의 종류를 分揀하기 때문이다. 淡味는 滲泄, 利竅, 下行 등의 作用을 하여 모든 排泄에 淡味の 藥物을 사용한다¹²⁵⁾.

이상과 같이 五味가 五行에 配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各各의 五味의 屬性이 五行의 屬性에 附合되는 것이 아니라, 五行의 結果에 따라 五味가 生成된다. 이는 五行의 屬性과는 違背되는 配屬이지만 결국 五行을 調節하는 의미로서의 五行配屬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辛味는 金에 속하지만 金의 收斂의 性質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收斂과는 反對인 發散의 性質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金의 收斂作用을 調節해주는 것으로서 理解해야 한다.

(3) 五味 各各의 屬性上 五行分類

그럼 五味의 作用上의 屬性은 어떠한가? 辛甘淡은 陽이 되고 酸苦鹹은 陰이 된다고 《內經》에서 言及하였지만 五味의 作用上의 五行配屬에 대하여서는 많은 설명이 되어있지 않았다. 최근에 朴¹²⁶⁾은 五味의 作用上의 五行配屬을 설명하였는데 그 것은 다음과 같다.

“단 맛은 發生力을, 매운 맛은 分裂作用을, 신 맛은 收斂作用을, 쓴 맛은 凝固作用을, 짠 맛은 緩和作用을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결론지어 “맛으로 구별한 五行의 本體(五味)는, 각각의 相剋關係의 五行上의 特徵을 간직하고 作用으로도 나타난다. 즉, 甘味는 木氣를, 辛味는 火氣를, 酸味는 金氣를, 苦味는 水氣를 간직하고 人體에서의 作用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하여 五味의 用的인 五行配屬을 試圖해 보았다. 그러나 이 配屬은 어디까지나 用的인 配屬일 따름이며, 原典에 나온 配屬은 生成을 基準으로 配屬을 한 것이니, 이것이 五行을 調節해 줄 수 있는 對待作用으로서의 體的인 配屬이 되는 것이다.

III. 結 論

지금까지 味の 發生學的 意義, 五味 各各의 屬性, 五味와 陰陽五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에 도달하였다.

1. 《內經》에서 언급한 '味歸形'과 '陰之所生 本在五味'의 具體的인 표현으로 小兒의 十月養胎過程에서 五味로써 五藏이 生成됨을 확인하였다.
2. 五味 各各의 作用은 《內經》에서 “辛散, 酸收, 甘緩, 苦堅, 鹹軟”과 “淡味滲泄”라고 最初로 言及되었고, 以後에 歷代醫家들이 內容을 補完하였는데 그 중 汪昂의 《本草備要》에서는 五味之用이라 하여 各各의 五味를 다음과 같이 定理하였다.

“酸者 能澹 能收, 苦者 能瀉 能燥 能堅, 甘者 能補 能和 能緩, 辛者 能散 能潤 能橫行, 鹹者 能下 能軟 堅 淡者 能利竅 能滲泄”

3. 辛甘淡味는 陽에 屬하여 發散하고, 酸苦鹹味는 陰에 屬하여 收斂한다.

4. 酸苦甘辛鹹이 各各 木火土金水에 配屬되는 이유는 五味가 各各의 五行에서 發生하기 때문이다.

5. 五行과 五味는 서로 對待作用으로 配屬되어 있으므로 五味가 五行의 性質을 調節해 주는 役割

125) 申佶求 : 前掲書 p56.

126) 박찬국 : 《內經》의 五味論과 四象醫學과의 關係, 서울, 大韓原典醫史學會, 1993, Vol 7, p20~24.

124) 申佶求 : 前掲書 p56.

을 한다.

6. 五味를 作用上 屬性으로 五行配屬을 하면, 甘味는 木氣를, 辛味는 火氣를, 酸味는 金氣를, 苦味는 水氣를 간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味에 의한 臟腑 發生學, 五味의 各各의 屬性 및 五味의 陰陽五行關係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앞으로도 味에 관한 精確한 認識을 위해서는 五味와 五臟과의 關係, 五味와 五體와의 關係 및 五味의 苦欲補瀉論에 관한 考察이 요구된다.

參考文獻

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 張隱庵·馬元臺 :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民國70年.
3.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4. 尹吉榮 :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5. 程士德 :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寇宗奭 : 本草衍義(歷代中國珍本集成 第六冊),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7. 高士宗 :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8. 申佶求 : 申氏本草學(總論), 서울, 壽文社, 1988.
9. 段玉裁 : 說文解字註,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10. 金定濟·洪元植 : 韓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
11. 金秉洙·姜政秀 : 味에 관한 文獻的 考察 (I), 대전,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 1996.
12. 王好古 : 陰證略例(歷代中醫珍本集成 第29券),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13. 李勉 : 管子今註譯(下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9年.
14. 宋炳基 : 韓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1992.
15. 劉昉 : 幼幼新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16. 吳貽谷主編 : 中國醫學百科全書(中藥學 7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7. 凌一揆外 2人 :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18. 苦學敏 : 中藥學, 北京, 中國醫藥科學技術出版社, 1990.
19. 張介賓 :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0.
20. 汪昂 : 本草備要, 臺北, 國興出版社, 民國74年.
21. 編纂委員會 : 東洋學概論, 서울, 麗江出版社, 1991.
2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23. 高曉山 : 中藥藥性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4.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內蒙古,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25. 李時珍 : 本草綱目(文淵閣 四庫全書 第772冊), 서울, 圖書出版 鼎談.
26. 金赫濟 : 書傳, 서울, 明文堂, 1981.
27. 繆希雍 : 神農本草經疏(文淵閣 四庫全書 第775冊), 서울, 圖書出版, 鼎談.
28. 朴贊國 : 《內經》의 五味論과 사상의학과의 關係, 서울, 大韓原典醫史學會, 1993, Vol 7.